



CEO Movement

신규 IT 서비스 이용확산에 따른 정보유출 및 사이버 공격 예방, 중소기업 보안활동 지원, 정보보호 취약계층 지원 등 2009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될 KISA와 황중연 원장의 활동은 연초에도 분주했다.

특히, 지난 1~2월 황 원장의 활동 중 정보보호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인터뷰가 눈에 띈다.

2009년 한해에도 국내 민간기업과 일반인의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황중연 원장과 KISA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



인터넷 윤리교육도 조기교육 : 2009년 동계 인터넷윤리 워크숍

KISA 황중연 원장이 지난 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가 주관한 ‘2009년 동계 인터넷윤리 워크숍’에 참석했다. 황 원장은 전국 대학교수와 초, 중, 고교 교사 및 일반인 150여명이 참석한 워크숍의 격려사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및 바이러스, 불법 유해 컨텐츠와 같은 정보화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윤리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인터넷을 시작하는 소년기부터 조기 교육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전국 대학에서 인터넷 윤리 과목을 담당하거나 관심있는 교수가 대거 참석했다.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재확인 : 라디오 프로그램 출현

지난 2월 13일 KISA 황중연 원장이 PBC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PBC 경제광장’에 출현, 약 20분여동안 전화인터뷰에 응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기업 및 기관 CEO로부터 경영철학과 성과, 비전을 듣는 ‘경제, 경제인’ 코너에서 황 원장은 국내 인터넷 정보보호 정책집행을 총괄하는 KISA의 역할과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는 한 편, 우리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KISA를 배우러 왔습니다”: 2개국 대표단 KISA 방문

정보보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과 선진체계의 모범이 되는 KISA의 운영 현황을 보기 위해 싱가풀 국내보안청 대표단과 페루 전자정부 관련 대표단이 각각 1월 12일과 19일에 KISA를 방문했다. 이들의 관심 사항은 인터넷 침해사고 및 전자서명 분야. 이들을 접견한 황 원장은 KISA의 활동현황 및 비전을 제시해 해외 대표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설 연휴 인터넷 안전 이상무! : 방통위 이병기 상임위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방문

방송통신위원회 이병기 상임위원이 지난 1월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KISA 내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상황실을 방문해 24시간 국내 인터넷 안전을 책임지는 KISA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기 상임위원은 지난해 대형 인터넷 쇼핑몰, 포털 등에 대한 해킹 공격 사고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특히 보안에 취약할 수 있는 연휴 기간 중 각종 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